



2차 자신학화 포럼

한국교회 자신학의 과거,현재,미래

평창 켄싱턴 호텔
10.04(월)~07(목)

2th

자신학화 포럼 위원회
Self-Theologizing Forum

자신학화 논의의 미래와 과제

정민영 선교사 (전 위클리프 국제 부대표)

들어가며-다시 생각해보는 자신학화 논의의 당위성

'자신학화'란 용어가 여전히 생경하게 들리는 이들이 많겠지만, 그 개념은 결코 새롭거나 비본질적이라 할 수 없다. 데이비드 보쉬가 잘 지적했듯, 모든 신학은 본질상 상황적이며¹ 특정 신앙공동체가 자신이 처한 상황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내고 해석하는 신학작업이 곧 자신학화인 셈이다. '신학'이란 단어 앞에 굳이 '자(自)'를 붙여야 하는 현실은 역사적으로 그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음을 암시한다. 선교적 여정에서 태어난 다양한 토착교회들이 주체적 신학작업을 감당하기보다 선교사나 제3자가 들여온 외래 신학을 수동적으로 베낀 결과, 신앙이 현지토양에 튼실하게 뿌리내리지 못할 뿐더러 하나님의 절대진리가 자신들의 독특한 상황에 적실하게 드러나고 구현되는 축복이 막히는 경우가 많았다.

신학작업이란 불변의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보듬어내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영원한 진리의 말씀(로고스)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신 이유다. 따라서 말씀과 세상, 복음과 문화, 텍스트와 콘텍스트 중 어느 하나만 취하고 나머지를 버려서는 안 된다. 말씀을 강조하면서 세상과 담쌓는 근본주의 종교도 잘못이고, 세상을 강조하면서 진리의 차별성(거룩)을 버리는 것도 잘못이다. 존 스토틀은 그것을 '이중 경청'으로 표현하는데,² 그의 생각에 영향을 미친 뒷얘기가 흥미롭기도 하고 자신학화 논의에 시사하

¹ "All theology is, by its nature, contextual." David J. Bosch, *Transforming Mission: Paradigm Shifts in Theology of Mission* (Maryknoll: Orbis, 1991), 423. 한글판: *변화하는 선교* (CLC)

² John Stott, *The Contemporary Christian: An Urgent Plea for Double Listening* (Leicester: IVP, 1992)

는 바가 커서 간략하게 소개한다.³

스토트의 생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사건은 1960년대 후반에 발생했다. 그가 담임하던 교회(All Souls Church)의 사역자 회의 도중 부목사인 테드 쉬로더(Ted Schroder)가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스토트의 문제를 용감하게 지적한 것이다. 해박한 성경지식을 소유한 그였지만, 그 진리의 소통 대상인 세상의 소리를 경청하지 않던 자신의 문제를 깨닫고 교정하게 된 결정적 계기(formative moment)가 되었다고 스토트는 고백한다.⁴

그 결과, 과거에 '세상적'이라 치부하며 멀리했던 동시대 문화에 진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단순히 설교에 인용하기 위해 건성으로 들춰보던 다양한 세상사에 진지하게 참여하면서 그의 안목이 크게 바뀌었다. 1960-70년대 횡행하던 급진적 사회운동들을 성경적으로 비판하면서도 한편으로 공감하면서 통전적 시각으로 로잔운동을 주도했고, 테러와 동성애, 경제정의와 팬데믹 등 그리스도인들이 기피하지 말고 복음적으로 대면해야 할 이슈들을 정리한 책⁵을 비롯하여 대조문화(counter-culture) 공동체로서 세상을 보듬어야 할 교회의 사명을 깊이있게 다룬 산상수훈 주석⁶과 앞에 언급한 책들을 내게 되었다.

신학이란 당면상황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담아내는 일이므로, 스토트가 하나님의 말씀

한글판: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 (IVP)

³ 스토트의 사상과 신학을 연구한 팀 체스터의 글 일부를 발췌하고 요약했다. Tim Chester, The Power of Double Listening (Crossway Articles, June 26, 2020) [The Power of Double Listening | Crossway Articles](#)

⁴ John Stott, *Between Two Worlds: The Art of Preaching in the Twentieth Century*. (Grand Rapids: Eerdmans, 1982), 12. 한글판: *현대교회와 설교* (생명의샘)

⁵ John Stott, Roy McCloughry, John Wyatt, *Issues Facing Christians Today* (Grand Rapids: Zondervan, 1985) 한글판: *현대 사회 문제와 그리스도인의 책임* (IVP)

⁶ John Stott, *The Message of the Sermon on the Mount: Christian Counter-Culture* (Leicester: IVP, 1978). 한글판: *산상수훈: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예수님의 가르침* (생명의말씀사)

과 더불어 그가 몸담은 세상의 소리를 경청하기 시작하면서 진정한 의미의 (자)신학작업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스토틀의 '이중 경청'은 자신학화의 당위성과 모델을 제공하는 셈이다.⁷ 경청은 내부자 스스로 하는 것이지, 외부자가 대신해줄 수 없다. 이중 경청을 통한 자신학화는 한국교회를 포함한 모든 토착 신앙공동체의 과제다. 이중 경청은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면서도 우리가 몸담고 있는 세상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문화적 민감성을 요구하며, 좌(세속화)로나 우(도피주의)로 치우치지 않고 건강한 균형을 유지하는 자신학화의 정도라 하겠다.

자신학화 논의의 미래와 과제

1. 온고이지신: 계속되어야 할 회고와 반추

자신학이란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더라도,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같은 개념을 이해하고 실천한 선각자들을 찾아내어 그 발자취를 추적해보고 그들의 시행착오를 통해 배워야 할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있다. 2백여 년 전 천주교를 받아들인 이벽과 그의 신앙공동체가 시도한 자신학화라든지, 우찌무라 간조에게 사사한 후 스승보다 더 발전된 자신학화 여정을 추구한 김교신 사례를 이번 제2차 포럼에서 다룬 것이 좋은 사례라 하겠다.

안점식은 광복 이후 자신학화 시도가 주로 1960-70년대 이래 "감리교신학대학교 중심의 토착화 신학과 한국신학대학교 중심의 민중신학이라는 형태로 진행되어왔다"고 본다.⁸ 복

⁷ 스토틀가 정의하는 이중 경청: "Double listening . . . is the faculty of listening to two voices at the same time, the voice of God through Scripture and the voices of men and women around us. These voices will often contradict one another, but our purpose in listening to them both is to discover how they relate to each other. Double listening is indispensable to Christian discipleship and Christian mission." (Stott, *The Contemporary Christian*, 29)

⁸ 안점식, "한국교회 자신학화(self-theologizing)의 방향 모색," *자신학화 Self-theologizing*, 현대선

음주의 진영에서는 주로 선교계에서 자신학화 관련 논의가 간헐적으로 진행되었는데, 텍스트로부터 출발하는 선제적 논의보다 복음이 언어와 인종과 문화의 장벽을 넘어가면서 필연적으로 대두되는 상황적 도전에 대한 응전의 성격이 강했다. 2010년 6월30일부터 7월3일까지 열린 제5차 세계선교전략회의(NCOWE)의 주제는 "한국형 선교"였는데, 자신학화/자선교신학화 관점의 본질적 논의에 뛰어들기보다 주로 기존의 실천적 모델을 찾아 적용하려는 차원에서 진행되어 신학적 깊이가 아쉬웠다.⁹

자신학화 논의를 심도있게 다룬 첫 모임은 2012년 1월에 열린 제6차 설악포럼이었던 듯 싶다. "서구선교와 비서구선교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이라는 주제의 틀 안에서 자신학 이슈를 다룬 이 포럼의 주요 쟁점을 미션파트너스(www.missionpartners.kr)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¹⁰ "지난 1월말 설악포럼에서 나온 주요한 이야기를 정리해봅니다. 설악포럼은 미래의 선교 패러다임을 모색하기 위한 포럼입니다. 이번 모임의 주제는 선교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입니다. 즉 비서구권 선교가 서구선교와 어떤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가지고 진행돼야 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연속선 상에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과 서구선교는 이미 그 효용을 다했기 때문에 단절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자신학화 과정(self-theologizing)을 통과한 이들이 다른 사람들의 자신학화 과정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한국선교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학화 과

교 15 (한국선교연구원, 2013), 7.

⁹ 분당 할렐루야교회에서 진행된 이 대회에서 회자된 핵심단어들이 "네비우스 정책, 지역분할 전략, 새벽기도 운동, 교회개혁 열기와 압축성장, 짧은 기간에 선교사 파송 대국이 된 것" 등 다분히 현상적이고 정량적인 평가에 기반한 자화자찬의 흐름이 짙었다. 참고: NCOWE V 초청의 글 [2010년 제5차 세계선교전략회의\(NCOWE ..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4년 후(2014년) "한국선교의 위기, 자신학과 자선교학으로 극복하자"라는 다소 실용적 표어를 내걸며 열린 제6차 NCOWE 역시 그 방향과 의도 및 내용 면에서 전 대회의 성격과 대동소이했다. ["한국선교 위기, '자신학·자선교학'으로 탈출구 찾을 것"](#)

¹⁰ [2012년 설악포럼 주요 쟁점 정리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원문의 철자와 표현을 약간 손질하여 인용하였음을 밝힌다.

정을 올바르게 통과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즉 남에게 주기 위해 말씀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변화를 위해 말씀을 읽고 배우고 변화하는 과정을 통과한 사람들에 의한 선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논점은 <복음의 원형 복원>이었습니다. 복음은 전파단계-회심단계-재형성단계를 거쳐서 현지토양에 정착되는데, 자신학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회심이 일어나지 않고, 선교사 문화의 기독교가 전파되는 것은 개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구교회가 우리에게 전한 복음이 자신학화 과정을 통해 우리 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서구종교로 개종하는 것이지 회심이 일어났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개종이 아니라 진정한 회심을 경험한 자만이 복음의 원형을 회복할 수 있고, 그 경험을 가진 자들이 다시 타문화권 사역에 임할 때 건강한 선교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선교사의 역할은 이런 과정이 일어나도록 돕는 조력자이지 주도자가 아닙니다. 선교사의 역할은 현지인들이 복음과 만나도록 도울 뿐이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현지인 스스로 회심을 경험하고 그들 문화 안에 복음이 재형성되는 여정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설악포럼이 마중물 역할을 했는지, 그해 12월 KWMA 주관으로 복음주의선교신학회와 한국선교신학회의 공동학술대회가 "자선교신학으로서의 한국선교신학"을 주제로 다뤘고, 이듬해인 2013년 한국선교연구원(KRIM)은 정기간행물 *현대선교* 제15호에서 자신학화 주제를 본격적으로 다룸으로써 학문적 정리에 공헌했다. 그러나 모처럼 지퍼진 자신학화 논의의 불씨는 신학계와 선교학계의 지속적 화두로 타오르지 못한 채 스러져가는 듯했는데, 2020년 자신학화 포럼이 시작되면서 논의가 재점화되었다.

2. 자신학화 개념의 심화와 접근론의 정제

자신학화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과거의 전통문화를 뒤늦게 들춰내서 신학화하자는 게 아니다. 동시대적 적실성이 무시된 접근은 되레 상황화를 역류하는 오류일 것이기 때문이다. 안점식은 유교, 불교, 샤머니즘 등 한국적 토양에서 진행된 다양한 자신학화 시도

를 언급하는 문맥¹¹에서, "자신학화는 이미 화석화된 어떤 전통적 개념을 되살리는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면서 "전통문화가 만들어낸 타당성 구조(plausibility structure)"를 읽어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게 한국 기독교의 실수라고 지적한다.¹² 긴 세월 켜켜이 쌓여온 역사문화적 토양에서 빚어진 고유한 세계관과 가치체계 및 행동양식의 자리에서 인식되고 구현되는 복음을 논하는 게 자신학화의 정도라는 의미다: "자신학화를 논의할 때 상황화의 연장선상에서 고민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 상황화가 복음과 문화의 관계를 다루는 것이라면, 문화의 세 가지 층인 행동양식, 가치체계, 세계관의 차원과 연관해서 고려하는 것이 마땅하다."¹³

문화의 심연인 세계관 차원을 다뤄야 한다는 것은 자신학화 논의가 문화의 표층적 현상에만 머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가리킨다. 자신학화의 산물을 목회와 선교의 현장에 적용하는 방법론도 고심해야 하지만, 그간의 몇몇 시도들이 그러했듯 너무 성급하게 실천목록을 도출하는 것은 자칫 피상적이거나 심지어 건강한 자신학화를 거스르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세계관 차원의 논의는 텍스트와 컨텍스트를 아우르는 통전적 관점('이중 경청')은 물론이고 컨텍스트에 대한 통섭적 접근을 주문한다. 자신학화 논의가 폭넓은 전문분야들과 더불어 대화하는 장구한 여정임을 암시하는 셈인데, 제1차 포럼부터 신학과 선교학뿐 아니라 철학과 논리학 등 인문학 분야의 전문가들이 대화에 뛰어든 이유다. 그런 면에서 인문학과 결별한 현대신학의 문제나, 하나님의 일반은총을 평가절하하고 기후문제나 피조세계 돌보기에 눈과 귀를 닫는 현대신앙의 이원론적 성향이 커다란 장애물로 다가온다. 자신학화 논의를 진지하게 지속하려면, 아직 우리에게 친숙하지 않은 통섭적 대화의 장들을 의도적으로 개설하고 긴 호흡으로 대화하는 노력을 이어가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원칙은 텍스트의 우선성이다. 하나님

¹¹ 안점식, 16-32.

¹² 같은 글, 17-20.

¹³ 같은 글, 8.

의 진리의 말씀이 자신학화 논의를 끌고가야지 컨텍스트가 텍스트를 비트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김교신 사례에서 배우듯, 일본을 본목(本木)으로 설정하고 거기에 성경을 접목하려 한 그의 스승 우찌무라 간조의 방식이 아니라, 성경이라는 본목에 조선을 접목하고자 노력한 김교신의 '성서 조선' 접근이 건강한 자신학화의 원리일 것이다. 제1차 포럼에서 다뤘듯, 컨텍스트 우선성은 시대문화적 상황에 텍스트를 종속시키는 혼합주의 함정에 빠질 위험이 높다. 성경에서 추출한 원리가 아닌 다양한 선교현장의 경험과 현상을 기초로 원리를 세우려 시도한 소위 '제3의 물결'이 무속적 패러다임으로 전략한 경우가 그렇고,¹⁴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지속된 이원론적 관점으로 복음을 세상과 무관한 도피종교로 축소한 현대 '복음주의의 스캔들'¹⁵이 그 사례라 할 것이다.

텍스트 우선성에 기반한 '이중 경청'으로 정의할 수 있는 자신학화 작업은 우리에게 '문화 긍정'과 '문화 변혁'이라는 이중적 과제를 던진다. 앤드류 월즈의 말처럼 복음은 먼저 문화의 포로가 되어야 하지만 (문화적 상황화) 궁극적으로 해당 사회와 문화를 진리로 변혁하는 해방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¹⁶ 그간의 신학과 사역은 이 이중적 과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충실히 담아냈는지 질문해야 하고, 그 과업의 완수를 위한 자신학화 작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감당해야 할 것이다.

¹⁴ 이 논의에 대해서는 다음 두 자료를 참고하라. 문상철, “영분별도 이론의 신학적 문제,” *영적전쟁*, 현대선교 제6호 (한국선교연구원, 1994), 31-55; Edward Rommen ed., *Spiritual Power and Missions: Raising the Issues*, Evangelical Missiological Society Series No. 3 (Pasadena: William Carey Library, 1995). 한글판: *영적 능력과 선교: 영적전쟁에 대한 바른 이해* (목양출판사)

¹⁵ 이 논의에 대한 다음 두 책자를 참고하라. Ronald J. Sider, *The Scandal of the Evangelical Conscience: Why Are Christians Living Just Like the Rest of the World?* (Grand Rapids: Baker Books, 2005) 한글판: *복음주의 정치 스캔들* (홍성사); Mark A. Noll, *The Scandal of the Evangelical Mind*

(Grand Rapids: Eerdmans, 1994) 한글판: *복음주의 지성의 스캔들* (IVP)

¹⁶ Andrew F. Walls, “The Gospel as Prisoner and Liberator of Culture”, *The Missionary Movement in Christian History: Studies in the Transmission of Faith* (Maryknoll: Orbis, 1996), 3-15.

3. 미래지향적 과제

폴 히버트는 자신학화가 토착교회 자립요건으로 알려진 '3자'(자치, 자급, 자전)에 추가되어야 할 '제4자'(the fourth self)라고 말했는데,¹⁷ 세계복음주의연맹 선교분과(WEA Mission Commission)의 전 대표를 역임한 빌 테일러는 1999년 10월 남미 이과수에서 열린 글로벌 선교신학 원탁회의에서 '자선교신학화'(self-missilogizing)를 '제5자'(the fifth self)라 불렀다.¹⁸ 선교신학과 신학을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기에, '자선교신학화'를 따로 거론하는 게 일견 군더더기처럼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자신학화의 하부개념인 자선교신학에 의도적으로 초점을 맞추는 일은, 선교적 상황이 자신학화 작업을 부추긴다는 점에서나 건강한 선교운동의 미래를 위해 필요와 가치가 있다고 본다.

안점식은 세계관 차원에서 다루지는 자신학화가 해석학적 렌즈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고 보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자신학화는 일종의 해석학적 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해석학적 혁명은 복음이 시대를 넘고 문화를 넘을 때 일어난다. 어떤 의미에서 기독교는 유대교로부터의 해석학적 혁명의 결과이고, 종교개혁은 로마카톨릭으로부터의 해석학적 혁명의 결과이다. 이러한 해석학적 혁명은 문화적 경계를 넘을 때에도 일어난다는 것이 앤드류 월스(Andrew Walls)와 데이빗 보쉬(David Bosch)의 주장이다. 데이빗 보쉬의 주장대로 유대기독교가 헬라문화 안에 들어왔을 때 해석학적 혁명이 일어났다."¹⁹ 한반도에 복음이 들어온 이래 한국교회의 신학계와 선교계에 일어난 해석학적 혁명은 무엇인가? 그런 게 있기는 했는가?

¹⁷ Paul G. Hiebert, "The fourth self," *Anthropological insights for missionaries* (Grand Rapids: Baker, 1985), 193-224. 한글판: *선교와 문화인류학* (조이선교회)

¹⁸ William D. Taylor, "From Iguassu to the reflective practitioners of the global family of Christ," *Global Missiology for the 21st Century: The Iguassu Dialogue*, ed. by William D. Taylor (Grand Rapids: Baker, 2000), 6.

¹⁹ 안점식, 10. 재인용: Walls, 16-25; Bosch, 194-200.

나가며-보편신학을 향한 원탁대화의 여정

제1차 포럼에서 우리는 지역신학의 확립과 보편신학을 향한 원탁대화를 중요한 미래과제로 보았다. 우리의 복음 이해가 아직은 청동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고 부분적이지만, 구원 여정의 끝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듯 분명하고 온전하게 깨닫게 되리라는 바울의 희망적 예언(고전 13:12)과 연결되는 개념이다. 모든 신학이 특정 시대와 상황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아직 완성된 보편신학은 존재하지 않는다. 지구촌 신앙공동체가 원탁에 둘러앉아 보편신학을 향한 대화와 분별의 여정에 동행하려면, 우선 각 토착 신앙공동체의 자신학화 작업을 통한 지역신학의 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스스로 설 수 있어야 함께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보편신학을 위한 지역신학(자신학)의 필요에 대해 문상철은 이렇게 말한다: "신학적인 교류를 해야겠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신학적인 자생성이 확보된 이후의 일이다. 우리는 신학적으로 의존적(dependent)이어서도 안 되고, 독립적(independent)이어서도 안 되고, 상호의존적(interdependent)이어야 할 것이다."²⁰

자신학화의 초점은 지역신학에 머물기보다 다양한 자신학들의 교차문화적 대화와 교류를 통한 초문화적 보편신학을 지향한다. 제1차 포럼 발제 "자신학화 논의의 배경과 의의"를 통해 제안했듯, 21세기를 앞두고 지구촌의 다양한 선교지도자들과 신학자들이 남미 이과수에 모여 보편신학을 겨냥한 원탁대화를 통해 내놓은 책자²¹가 지속적 논의를 위한 자양분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특히 대륙 및 광역 단위의 복음주의 선교학을 폭넓게

²⁰ 문상철, "자신학화," *자신학화 Self-theologizing*, 현대선교 15 (한국선교연구원, 2013), 5.

²¹ Taylor ed., *Global Missiology*

다른 제4부²²와 다양한 선교적 도전에 대한 지역신학적 대응 사례들을 다른 제5부²³가 자
신학화 이슈와 연계해서 참고할만한 가치가 높아 보이고, 역사적 교회의 공동체적 영성
으로부터 배우는 제6부²⁴가 지역신학의 한계와 위험을 뛰어넘어 보편신학을 추구하는 원
탁대화의 단초를 제시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²² "Addressing issues of globalized Evangelical missiology," 같은 책, 257-388.

²³ "Responding to the challenges," 같은 책, 389-488

²⁴ "Listening to mission that rises from community and spirituality," 같은 책, 489-518.